



## 재활용 부품 2단체, 첫 합동 하사교환회 도약을 다짐 하는 친목의 자리로

처음으로 합동 개최 - BEST 리사이클러즈 얼라이언스와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부품 협의회(이하 리협) (구리하라 히로유키(栗原裕之) 대표 이사)는 25일, 2 단체의 합동 신년하사교환회(이하 신년회)를 도내에 있는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지난해까지 별도로 실시하고 있었지만, 개최 일정이 가까우며 참가자도 공통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처음으로 합동하여 개최. 약 200 명의 재활용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올 한해의 도약을 다짐하는 성대한 친목의 자리가 되었다.

신년회의 서두에서, 시미즈 노부오(清水信夫) 실행위원장(전 대표 이사)이 “재활용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낙관할 수 없지만, 이번 연도는 공급자 측과 수요자 측의 한층 더 긴밀한 연계가 중요해진다”고 지적. 나아가 “협조와 경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협조와 협력, 경쟁에서는 결코 파워 게임이 아닌, 창의력을 발휘하여 절차탁마하는 경쟁이 중요해진다”고 인사했다.

신년회에서는 수년 동안,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부품 협의회와 수장을 맡아 왔던 시미즈 전 대표 이사의 공적을 기려, 구리하라 대표 이사가 꽃다발을 증정. 구리하라 대표 이사는 “대표 이사라는 자리에서 업계의 지주로 계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신 대표 이사로 취임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작년은 도산이나 폐업이 잇따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인 다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업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업계가 있어야 단체, 각 회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업계로서 해야 하는 일 등에 노력하며 업계가 이어져 나가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싶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신년회에는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자동차와 자동차리사이클실의 호사카 아키라(保坂明) 실장과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정비과의 구데 도시히코(久手俊彦) 과장 보좌가 내빈으로 참석. 호사카 실장은 “각 단체의 교류를 더욱더 늘려 연계를 강화하며 기존의 틀을 넘어서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구데 과장보좌는 “재활용 부품의 탈착 작업도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인사했다.

신년회에서는, 일치단결을 목표로 하는 재활용업계를 상징하는 일도 있었다. 빅웨이브(핫토리 아츠시(服部厚司) 사장, 아이치 현 아마시(愛知県あま市)가 리협에 입회를 결정했다고 핫토리 사장 스스로 공표. 리협은 3월의 이사회에서 입회에 대해 상의하기로 하여, 회장 내로부터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인사하는 구리하라 신 대표 이사와 꽃다발을 받는 시미즈 전 대표 이사

(일간 자동차신문 2월 2일)

## < JARA 회원의 소개 >

### 미츠모리 코퍼레이션 독자적 인 리플레이스 부품 순조롭다

미츠모리 코퍼레이션(三森Corporation)(오쿠보 히로코(大久保弘子) 사장, 센다이시 미야기노구(仙台市宮城野区))은, 작년 가을에 해체 부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활용 부품 상사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커다란 방침 전환은, 지난해 9월 15일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모리야 다카유키(守屋隆之) 전 사장이 5년 가까이 고민하고 결단을 낸 것이다. 신체제가 되어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재사용 부품과 리빌트 부품 뿐만 아니라 사원의 발안으로 제품화한 독자적으로 개발한 리플레이스 부품의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인원 증강을 시야에 넣고 고객 대응력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 ■5년 가까이 생각해 낸 결단

모리야 전 사장은, 자동차 재활용 부품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위치에서 30년 가까이 책임을 지어 왔다. 자사 경영에서도 수익을 차지하는 재활용 부품의 매출 비중이 약 80%로, 타사와는 다른 기업 경영을 계

속해 왔다. 오쿠보 사장은 “모리야 전 사장은 ‘시세에 좌우되지 않는 일’을 늘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철 스크랩 시장은, 지난해 크게 시세가 침체한 적도 있어, 해체 부문의 일시 정지는, 모리야 전 사장이 생각해 낸 끝의 결단이었다. 이에 따라, 부품 판매를 특화한 사업으로 커다란 방향 전환을 하여, 작년 8월말에 해체 부문을 담당하고 있던 오기마치(扇町) 공장을 폐쇄했다. 앞으로, 해체 부문이 부활할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응해 나간다.

오쿠보 사장은 회사의 재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왔다. 모리야 전 사장의 서거라는 슬픔을 이겨내고 “사원 모두가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사원이 일하기 편한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여성 경영자로서의 시점으로 경영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오리지널 부품

동사의 특징 중 하나는, 사용후 자동차로부터 취득한 부품의 손상 부분을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리플레이스 부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현재 ‘리플레이스 머플러’ ‘재생 프로펠러 샤프트’ ‘재생 헤드라이트’를 라인업한다. 리플레이스 머플러를 제품화한 계기는 “사원의 제안으로, 모리야 전 사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스즈키 마나부(鈴木学) 이사 겸 총괄 본부장)라고 되돌아 본다. 리플레이스 머플러는, 녹 등으로 손상된 부분에 신품의 파이프와 스테이를 용접한다. 재생 프로펠러 샤프트는, 비분해식 스파이더를 교환한 후에 균형 조정을 확인한 후 출하한다.

저가격과 고품질의 두 측면을 양립시킨 부품으로, 고객의 평가도 높다.

리플레이스 머플러와 재생 프로펠러 샤프트는 “리빌트 메이커가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화한 것으로, 이 분야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스즈키 이사역)라고 말한다. 고객의 문의에 응해 라인업은 확충하고 있지만, 리빌트 메이커나 재사용 부품 구매처의 JARA 그룹 각사와의 협조해 나가는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

#### ■모리야이즘을 계승, 새로운 성장으로 발전

미츠모리 코퍼레이션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에게, 앞으로의 경영 방침을 물었다. 오쿠보 사장은 “(이 회사에)취업해 좋았다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 사원이 풍요로워지면, 사원의 가족도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사회 기여에 배려할 수 있는 사원을 육성하고 싶다”라고 장래를 내다본다. 스즈키 이사역은 “모리야 전 사장이 언제나 말씀하신 ‘활기와 인사’라는 기본을 충실히 지킨다”라며 모리야이즘을 계승해 나간다.

한편, 고객 문의에 모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과제이다. 따라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런트도 영업도 사원을 늘리고 싶다”(스즈키 이사역)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신체제 속에서, 재활용 부품의 이용을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원의 모습을, 모리야 전 사장은 믿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동사는, 재활용 부품 상사로 꾸준히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인 리플레이스 머플러는 고품질과 저가격을 양립



신체제를 담당하는 오쿠보 히로코 사장(사진 왼쪽)과 스즈키 마나부 이사역(동 오른쪽)



미츠모리 코퍼레이션 본사 외관



재생 프로펠러 샤프트도 외주 거래처의 협력으로 제품화



전국의 자동차 재활용 관련 단체의 간사가 모였다



ELV기구의 사카이 대표 이사의 발언으로 회의가

## 연재 '제3회 자동차 리사이클·서밋' 자동차 재활용 시장의 현상과 과제

일간 자동차신문사는 3일, 도내의 호텔에서 '제3회 자동차 리사이클·서밋'을 개최했다. 전국의 재활용 관련 단체 간부와 행정 담당자 등의 약 40명이 참가. 자동차 재활용 시장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여 정보를 공유, 앞으로의 업계 활성화를 향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사용후 자동차(ELV)의 발생 감소 및 폐차 유통 경로의 변화, 자원 가격의 침체 등 재활용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이래, 일차단결된 업계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해체, 유통이라는 그룹의 틀을 넘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리사이클·서밋의 모습을, 앞으로 3회에 걸쳐 보고한다.

진심으로 건디기 어려워지고 있다. 회의의 서두를 끊은 일본 ELV 리사이클 기구(ELV 기구)의 사카이 야스오(酒井康雄) 대표 이사의 이 말이, 자동차 재활용 업계의 현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신차 수요의 강되고 중고차 수출 증가에 따른 ELV의 발생 감소, 스크랩 시장의 침체, ELV 구매 시 높은 가격 유지와 부품 운송비의 상승 등, 재활용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장 동향과 경영 상황은 스테디 그룹 등에서 회의의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을"(일본 파트 협회의 하야가와 이치지(武川一二)) 정도의 상황이다.

### ■시세는 시세. 그 이상으로 ...

특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 폐차 구매의 감소이다. 스크랩 시세의 침체도 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수익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부품 유통 단계에서 조직하는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부품 협의회(리협)의 구리하라 히로유키 대표 이사는 "시세의 변동은 과거부터 있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ELV의 수집이 어려운 상황은 커다란 과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리협에의 입회를 결정된 빅웨이브의 핫토리 아츠시 사장도 "시세는 어디까지나 시세.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시세로 인해 일회일비하는 것이 아닌 부품을 판매하여 유통함으로써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뒤에, "지금의 사업자는 국내 부품, 무역, 스크랩의 세 기둥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구매 부문에서 ELV의 발생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동일본 자동차 해체처리 협동조합의 초보지시(坪千代志) 이사장도 "시세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되풀이되어 오고 있는 것. 이번 스크랩 시세의 침체도 약한 영향은 미치겠지만, 팔리는 것을 취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당황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성적으로 분석한다.

### ■구매 가격의 고공행진

시스템 오토 파트의 도이 히데유키(土居英幸) 사장이 시사하듯이 "스크랩 시세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단지 "지난 몇 년 동안 폐차의 흐름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 중고차 옥션(AA)에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다. 그곳으로부터 사들이지 않으면 수요가 있는 부품을 취급할 수 있는 차량도 확보 불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었다.

부유카이(部友会)의 하토무라 쇼지로(鳩村昭二郎) 대표 이사는 "구매 가격은 AA와 관련되어 높아지고 있다. 경쟁해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부품을 취득하여 쓸 수 있는 차량이 비싸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ELV에 가까운 차까지 비싸 어려워지고 있다.", 데크루스 네트워크(Total Ecology Car Life Service Network)의 하리가야 마사유키(針ヶ谷昌之) 대표도 "스크랩 시세가 내려 구매 가격도 내려가면 괜찮겠지만, 구매가가 내려가지 않고 대수가 감소하고 있다. 결과 경쟁이 격화되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환경은 승용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트럭도 마찬가지. 트럭용 중고 부품을 취급하는 일본 트럭 리파인 부품 협회(JTP)의 미야모토 마사키(宮本真希) 대표 이사는 "회원 47사의 수치를 보면 지난 1년간의 실적은 탄탄하다. 그러나 ELV의 확보나 지역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표면상의 수치는 좋지만, 그 내용은 어려운 상황"인 것을 밝혔다.

한편, JARA의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은 "합병 3년 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품 판매는 두 개의 시스템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으며, 차량 구매에 대해서도 토요다통상(豊田通商)의 협력도 있어 호조를 보인다"고 한다.

###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의 노력

에스·에스·지의 구도 히로시(工藤浩司) 이사장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보유 대수의 축소와 사고의 감소 등에 의해 구매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틀림없다. 장래의 불투명감이 강도는 가운데 각 단체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지역 부품상도 멤버로 가입하는 ARN의 오카다 다카노리(岡田誉伯) 대표 이사도 "멤버 교류를 하면서 애프터 마켓 전체를 파악하려고 스테디를 하고 있다. 재사용뿐만 아니라 리빌트, 신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파악해 나가자 않으면 안 된다"고 전망한다.

## C02 삭감 수치 (JARA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02 삭감 효과 참고치  
2016년 12월

3, 137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의 차이가 C0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 (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 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ありがとう」を  
たくさんもらえる会社へ

<http://www.jara.co.jp/>

데크루스 네트워크의 하리가야 마사유키 대표는 "업자로서는 어떻게 1대의 부가가치를 부여하는가가 최대의 테마. 부가가치 = 매출 = 수익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의 경영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토탈 카 리사이클 그룹의 이시야마 츠요시(石上剛) 부회장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채산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다음의 도전을 향한 투자를 찾으면서 회원과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NGP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협동조합의 사토 유키오(佐藤幸雄) 이사장은 "조합원의 경영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킬지가 과제. 조합으로 시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다른 단체와도 협력 가능한 부분은 서로 협조해 가면서 발을 맞춰 나가자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재활용의 NPO 법인인 RUM알라이언스(ReUseMotorizationAlliance)의 곤도 노리히코(近藤典彦) 대표 이사는 "어려운 현황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밀한 해체를 통해 많은 부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비즈니스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재활용 부품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제3회를 맞이한 리사이클·서밋에서는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는 측의 업계 단체도 회의에 출석해 주었다. 수요자 측의 논평에서 수요 확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본 자동차 차체 정비 협동조합 연합회의 야마모토 야스시(山元康史) 부회장은 "자동차 보험의 요율 개정으로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자비수리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 부품의 활용이 늘고 있다"라고 지적. 일본 자동차 정비 진흥회 연합회(이하 일정연(日整連))의 이토 마사노부(伊藤正信) 사무국장도 "정비 업계도 보험 요율의 재검토 관계에서 재활용 부품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사업용 차량은 자동차를 오래 쓰는 신품보다 재활용 부품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재활용 업계는 더욱 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일간 자동차신문 2월 9일)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는 ARN의 오카다 대표 이사



이번은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는 측도 참가했다. 일정연(日整連)의 이토 사무국장(오른쪽)

**KOBELCO**

**We Save You Fuel**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 コベルコが提案する 新しい考え方

## マルチ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の解体以外にも廃家電などの金属製機器の解体およびさまざまな複合廃棄物の解体・分別作業が可能です。

## 自動車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に含まれる素材の分別作業がスピーディーに行えて希少金属資源の回収が可能です。



SK135SRD



SK210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 新构想源于神钢

##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各种复合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素材的分类作业，能够回收稀金属资源。

SK210D



SK210D



成都神钢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 新构想源于神钢

##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进行各种复合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部素材的分类作业，得以回收稀有金属资源。

SK200



SK200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

# 새로운 발상은 KOBELCO에서

## 멀티 해체기

용도 폐기된 자동차의 해체 외에도 폐가전제품 등 금속제 기기의 해체 및 다양한 복합 폐기물의 해체·분리작업이 가능합니다.



SK135SR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 New ideas come from KOBELCO

##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 New ideas come from KOBELCO

##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135SR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 New ideas come from KOBELCO

##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 Car-Dismantling Machine

Car-Dismantling Machine efficiently separates and sorts raw materials in end-of-life vehicles and is able to recover rare earth metals.

SK210D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